

# OKNP

## 사유택

사유택은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회화전공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회화적 평면의 스크린에서 작동하는 현상학적 순간 및 시간성이 개입하는 회화작업의 특이성을 탐구하고 있다. 첫 개인전 《Image painting》(갤러리 조선, 서울, 2002)을 시작, 최근의 개인전은《Inside Out: 안과 밖》(우민아트센터, 청주, 2024)에서 캔버스라는 회화-평면의 앞/ 뒷면을 연결하는 전략과, 《줄고 있는 소년》(청주시립미술관, 2023), 《장도-물성적 사태》(GS 칼텍스미술관, 장도/여 수, 2022), 《사실, 소년은 줄고 있었다》(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2021)와 9 회 개인전과 주요 그룹전으로, 의식과 망각의 비대칭적 사유를 탐구하는 작업을 통해, 금호미술관, 소마미술관, 이응노미술관 / 일상의 환경에 접속하는 시공간의 운동성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대구예술발전소, OCI 미술관,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소마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마케도니아 국립미술관(스코페), Wolverhampton Art Museum(영국)/ '지속적인-순간적인'시공간의 교차를 통한 기억, 망각,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는 회화로 아르코미술관, 일민미술관,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에 참여하였다.

2017 청주공예비엔날레 디렉터스테이블 미술감독, 2015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국제아트페어 디렉터, 작가의 관심사인 '시간성'에 관한 '엔솔로지북(상하권)'을 김남수 기획.평론가와 제작했으며(경기창작센터,2016), GS 칼텍스문화재단(2022), 대구예술발전소(2021), 창작공간 DAL(2019), OCI 미술관 창작레지던시(2017-2018), 경기 창작센터(2016), Residency Unlimited(New York, 2011), 헤이리예술마을(2011-2015),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2007) 레지던시에 참여한바 있다.

학술연구 및 예술프로젝트 경력으로, 2012~2024년까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및 후기학술연구교수 (B)유형 선정 지원 사업을 통한 연구논문으로 〈죽음을 다루는 예술: 죽음의 비폭력적 사회화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한국연구재단),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리더십 연구〉(한국미술경영학회), 〈리더예술인의 사회참여적 예술에 관한 연구〉(한국연구재단/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지역문화예술 감독의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한국연구재단/한국예술경영학회), 〈장면의 순간을 포착하는 시간과 의식에 관한 연구〉(기초조형학회), 〈짧은 순간의 긴 충격이 주는 현대회화의 시간성 연구〉(예술과미디어학회) 외 다수가 있다.